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World Top K-water!

대한민국의 내일이 좀 더 즐거워지도록, 좀 더 행복해지도록!
물로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2021년 한국판뉴딜 그린뉴딜유망기업100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사람이 중심인 세상, 세상을 이끄는 기업
P&I휴먼코리아

- 환경부 2019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환경부 2020년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녹색기술 인증**(제 GT-21-01190호)
- 행정안전부 **방재신기술** 지정
- **INNOBIZ**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빗물저류조란 호우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수자원 부족(건기) 시 **저류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물입니다.
P&I **빗물저류조**는 시공성이 우수하고 벌집구조로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고객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優秀기업**

(주) 피엔아이휴먼코리아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테라타워 1차 A동 14층) TEL : 02)6426-3122 FAX : 02)6426-3124 www.pnihuman.com

www.samjinvalve.com
www.jmcvalve.kr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World Innovator samJin

밸브회사를 넘어 세계적인 친환경 수처리업체로 도약!

고객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기업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기술을 혁신하는 기업
심도있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세계 최고의 밸브 기술로 세상을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 '정도경영 기업'

[주]삼진정밀
[주]삼진 JMC
[주]삼진코리아

HUMAN NETWORK CORPORATION

주식회사 휴먼네트워크

商即人 人即商

주요업무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전략, 사후
- 수질오염총량제
- 환경 시뮬레이션-수질, 대기질, 악취, 소음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종합대책 수립
- 교육환경평가
-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저영향개발 설계 및 시공
- 환경컨설팅
- 환경연구개발업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242번길 15-10, 302호(도안동, 한아름빌딩)

T. 042) 824-8920 / F. 042) 824-8921

CONTENTS

대청호 소식

2022 가을 vol.135

6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0주년 기념행사, 환경정책포럼

10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80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인터뷰

14 실개천과 금강 3

18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12

22 정책&이슈

26 서화천거버넌스 활동보고

27 회인천거버넌스 활동보고

28 네트워크 사업보고

32 대청호 뉴스&뉴스

34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 가족' 소식

36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35

발행일 2022. 9. 7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김재곤,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민족 대명절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마을들이 손님맞이를 위해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깨끗한 대청호를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과 환경교육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사단법인 비영리환경단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20살 생일

2001년 대청호 회남수역에 조류대발생이 발령되면서 K-water와 대전충청권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 공동논의 끝에 2002년 4월 11일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로 발족된 우리단체는 2022년 현재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이름으로 성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7월 15일, 옥천 명가웨딩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면서 대청호가족들은 서로의 존재와 함께 만들어 간 20년간의 활동상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축하하는 시간을 공유했다.

1부 기념식, 2부 환경정책토크콘서트, 3부 축하공연으로 꾸며진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대청호 상하류지역민들이 한 가족임을 실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으로 이날 비록 마스크를 벗지는 못했지만 눈인사만으로도, 또는 반가움의 허그, 악수와 같은 몸짓만으로도 하루종일 설레임과 흥이 고조되었다.

20살 생일의 첫 시작…

1부 기념식에서 최병욱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한마음으로 대청호 수질개선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한 모든 대청호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서로 축하받아 마땅하다”고 인사하며, “대청호 상하류 상생발전모델로 우뚝 선 대청호보전운동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1부 기념식 행사 공로자 시상

1부 기념식 행사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일원화가 시작되기 전 후과정이 대청호보전운동이 변모한 발전과정과 흡사하기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물환경연대단체로서 국내 유일의 민관협력거버넌스로 자리잡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약에 깊이 감사하며 늘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창립초기부터 민관협력 및 수질개선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12명의 공로자표창에 이어 정책연구위원회 맹승진 위원장으로부터 비전선포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협치, 연대, 통합, 회복 등 4대 비전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상생의 유역공동체를 적극 실현할 것을 모두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지나온 20년과 앞으로의 미래

2부 환경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초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사회로, 역대 전 집행위원장, 이사, K-water, 지자체, 정치인 등 총 10명의 패널과 청중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졌다.

2부 환경정책토크콘서트

창립시 초대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했던 유병로 한밭대학교 교수가 '대청호보전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며 주제발표를 마친 후 4가지 주제로 축약, 소회를 나누고,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매우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졌다.

나에게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의미를 물었더니, '또 하나의 풀꿈', '쓴 오이인줄 알았는데 수박', '자부심', '소확행', '산소', '든든한 동행', '행복', '희망', '보람' 등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협력적 상생모델을 만든 것',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만든 성장', '결속력', '우리 아이들' 등 희망찬 성과를 논했다. 특히 '바리실'이 성과라고 표현한 최광수 금산 명곡리장은 "우리 마을이 바리실인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성과는 바리실 마을이 친환경마을로 변모하는데 지대한 공을 보탰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반대로 한계를 논하는 시간에서 많은 이들은 '끼리끼리', '안방', '예산문제 심각', '태생(아픈 손가락으로 태어남)', '스카웃의 한계', '정체성'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민관협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상하류간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특히 기관에서의 폭넓은 참여도, 재정의 다원화방안 모색 등으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모으는 일',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 '나침반', '협력과 상생의 길이 어려우나 더 확대되기를 희망', '재정립',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 확보' 등 한계와 연동된 해결책 등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일치로 모아졌다.

20살 생일을 마치며…

3부 축하공연의 시간. 운동본부 부설기관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국장의 오카리나 솔로 연주. 에니메이션 동영상을 뒷배경으로 오카리나가 연주되는 내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앙코르'가 울려 퍼졌다.

이어 목소리의 어울림을 추구하는 스크램블즈 팀의 아카펠라 공연. 어떤 악기도 필요 없이, 완벽한 음악이 완성되었다. 감동이 최고조 되면서 이어 환경마당극 '대청호가라사대' 공연이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대미를 장식했다.

3부 오카리나 공연

3부 마당극단 좋다 공연

강산이 두 번 바뀌는 가운데 대청호 물을 보내주는 상류지역 주민들과 대청호 물을 먹고 활용하는 중하류 주민들과 상생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우아한 백조의 몸짓 아래 숨겨진 숨 가쁜 발걸음이 바로 대청호보전운동을 만들어가는 본부사무처와 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그것과 흡사하다.

"번아웃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최병욱 이사장의 말씀만으로도, 또한 한날 한자리에 2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해준 것만으로도, 이날 하루를 온전히 대청호보전운동에 의한, 운동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교환했던 것만으로도 활동가들 모두는 다시 일어나 운동화 끈을 바짝 묶을 것이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 앞으로의 미래가 시작된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한계를 극복하며 새 희망을 한땀한땀 만들어갈 설렘과 기대도 가져본다.

대청호보전운동의 내실을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더 많은 대청호가족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실감하며, 늘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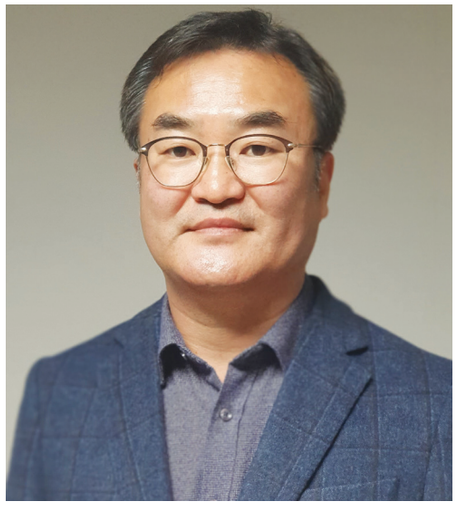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창립의 산증인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인터뷰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처음 시작부터 함께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 최충식 사무총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8월경 판암동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에 방문하여, 사무총장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최충식 사무총장 약력

1996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사무국장
2002 금강보전네트워크 사무처장
2005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2012 충청남도 녹생성장포럼 위원
2015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위원
2018 대전세종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2019 5대강유역협의회 사무총장
2019 환경부 시민환경감사관
2021 한국환경공단 감사자문위원
2021~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나의 어린시절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연무대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때는 명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체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가 멀리 뛰기 선수를 2년간 했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키는 크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상부를 그만두게 되고 중3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연합고사를 좋은 성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고민한 결과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시고 할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무원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치 쪽으로 갈지 법학 쪽으로 갈지 아니면 행정 쪽으로 갈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지인의 추천으로 행정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 쪽은 어렵기도 하고 법학 쪽은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몇몇과 함께 충대 행정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고시 공부를 하려 했지만 당시 대학은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놀 것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았죠. 하지만 덕분에 선배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고 많은 것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탈도 많고 일도 많았던 나의 대학생활

그렇게 대학생활을 지내던 와중에 1학년 때 저를 눈여겨본 선배가 제가 2학 때 저희 학과 부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회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랬죠. 그 중 하나가 저희 과 학생회장 선배가 갑자기 잠수를 타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부학생회장으로써 학생회장 대행을 하다 3학년이 되어서는 진짜 학생회장이 되었고 그 후 학생회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을 시작하기까지…

그렇게 활동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회활동 등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제가 농민분들과 친하기도 해서 농업 유통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제가 원하는 방향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번엔 선거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은 실패하셨고 저는 다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예전에 알게 되

었던 분께서 환경운동연합이 막 커가는 시점인데 논리력을 가진 활동가가 필요하다. 한번 환경운동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환경운동은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했지만 여러 분들의 말씀들을 듣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게 환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계룡산 민속박물관

96년도에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96년도에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자 라는 말이 나왔었죠. 월드컵 경기장이 원래 계획 된 곳이 지금의 한밭수목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든 위치적으로든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꼭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캠페인하고 수목원 없애면 안된다. 그 장소는 적절치 않다 라며 외치면서 다녔죠. 저희 환경운동 단체들은 기존의 한밭운동장에 중축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 1년 이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홍명상가에 가서 캠패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둔산동 시민들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지금의 노은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저희가 99년도에 계룡산 보전시민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쯤 계롱산에 민속박물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민속박물관을 산 밑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 산림을 다 파괴하면서 거기에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립공원에 살아있는 박물관을 제거하고 죽어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며 문제제기를 하며 반대운동을 활발하게 했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 공무원이 박물관을 지으려는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지게 되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자 분이 쓰러지셔서 저는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 분을 찾아가 각서와 도장을 받아서 왔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런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위치에 박물관이 세워지더라고요. 저희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정말 아쉬움만 남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게

이번에 제가 정책위를 준비하면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20년 총회자료집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의 변화의 추이도 보고 사업의 추이도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초창기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잘한 점이 회원마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마을마다 장승제를 해서 장승도 세워주고 마을과 협력을 하여 여러 활동을 하는걸 보고 참 부럽다 잘 한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요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면 장승이라던가, 도랑살리기 현판들이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지관리가 안되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본부 혼자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네트워크 간에 협력해서 회원마을을 100개든 200개든 넓히면서 주기적으로 회원마을과의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와 회원마을 그리고 본부가 함께 더욱 더 깨끗한 대청호를 만들어가는 것이 본부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제가 보기에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고 홍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이만큼 했는데 그걸 포장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잘 포장해서 국제사회에 홍보도 하고 전국 물 관련 행사 할 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대해 발표하면 “그렇게 하고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것이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각 네트워크와 회원마을 그리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더욱더 협력을 하며 유대관계를 끈끈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더욱더 많은 곳에 알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석천, 초강천 그리고 올갱이국

석천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류봉이 보입니다

항아리가 정겹습니다

짚으로 만든 농기구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갑자기 황간이란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황간은 대전과 김천의 중간 지점으로 대전에서 김천을 갈 때 가끔 지나간 곳이라 기억이 납니다. 오늘 문득 가고 싶은 이유는 석천과 초강천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5분, 황간행 무궁화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열차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기차지만 여행하기는 그만입니다. 20여분 지나고 있는데 동쪽의 산머리에서 해가 뜸니다.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지만 오늘따라 더 크게 보입니다.

황간역에 내리니 장독대에 시를 적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독을 엎어놓고 흰 페인트로 쓴 시가 이국적입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참 멋집니다. 많은 시 중에서 정완영의 '고향 가는 길'이란 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역 로비 옆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서관 아래에는 옛날에 농사짓던 농기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이 쌀이었으므로 벼를 키우는 농기구들과 짚으로 만든 것들이 보입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정겨운 물건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런 농기구를 생각했을까요?

밖으로 나오니 온몸이 떨립니다. 영하 7도, 어제까지는 따뜻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입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망설여집니다. 역 앞으로 나오니 길옆에 지붕이 낮은 옛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날씨는 춥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 좁은 도로를 지나다 보니 낮익은 식당이 보입니다. 몇 년 전 지인들과 같이 와서 먹은 식당입니다. 메뉴는 모두 '올챙이 국밥'입니다. 황간 주변에는 강이 많고 올갱이(다슬기)가 많이 살고 있어서 이 주변 식당들은 모두 '올갱이 국밥'을 합니다. 아침 9시, 식당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식사는 된다고 합니다. 잠

올갱이국입니다

시 후 올갱이 국밥이 나왔습니다. 흰밥, 김치, 썰은 매운고추 그리고 아욱과 된장을 넣어 끓인 올갱이국입니다. 파아란 올갱이가 입맛을 돋굽니다. 배가 고픈지라 순식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벽에는 그동안 다녀간 사람들의 낙서가 보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한결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바로 강변으로 갑니다. 아뿔싸! 강변을 보는 순간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 옆에는 갈대나 버드나무들이 하나도 없고, 포크레인 소리만 요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저 강물에 살고 있던 올갱이, 피라미, 붕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한참을 내려가니 하천이 세 개가 만나는 삼각지가 보입니다. 왼쪽은 초강천, 오른쪽은 석천입니다. 초강천 저 멀리 우뚝 솟은 칼날 같은 봉우리가 세 개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월류봉'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류봉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오른쪽 산길로 접어듭니다. 바위 옆에 만든 잔도 같은 데크 길은 경관이 참 좋습니다. 왼쪽은 석천, 오른쪽은 벼랑의 바위에 소나무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물빛을 보니 탁해 보입니다.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거의 없고 넓은 바위들만 많이 보입니다. 바위 색깔이 검은색이니 물빛도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이름을 '석천'이라고 지었습니다. 둘레길로 들어서니 이제야 물소리가 들립니다. 연두색의 솔잎과 바위의 물소리를 들어니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상류의 강변에는 갈대들이 많이 보입니다. 갈대는 물을 정화하는 정수기와 같지요.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나 갈대들도 모두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돌 하나, 모래 한 줌도 이 세상에 쓰임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멀리 백화산이 보입니다

저 멀리 높은 곳에 솟은 큰 봉우리가 세 개 보입니다. 백화산입니다. 석천의 물은 백화산 아래를 돌아 돌아 경상도에서 충청도쪽으로 흘러 금강으로 갑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백화산의 봉우리들이 만나 참 아름답습니다.

월류봉 표지석입니다

석천의 중간쯤에서 발길을 돌려 반대쪽으로 내려옵니다. 갈 때는 산길, 올 때는 아스팔트길로 같은 길이지만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계속 내려오니 아까 본 월류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석천과 초강천이 만나서 내려가니 물이 많아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내려 갑니다. 대나무와 감나무가 보입니다. 누가 쌓았는지 작은 돌탑들도 보입니다. 깍아 지른 듯한 세 개의 봉우리와 강변의 바위 위에 정자도 보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이곳이 너무 좋아 서원을

월류봉 정자입니다

월류봉 뒤로 해가 보입니다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고합니다. 옛 어른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월류봉은 '달도 머물다 간다'는 뜻입니다. 참, 이름도 잘 지은 듯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 삼국시대에도 강물은 월류봉을 휘돌아 나갔겠지요. 석천을 만난 초강천은 심천을 지나 금강으로 들어갑니다. 이곳 초강천은 하천의 상류이지만 수량도 적고 수질도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본 하천정화사업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강은 수 천년 아니 수 만년, 수 억년 동안 흘러 흘러 지금과 같이 되었겠지요. 그것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하천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황간역에 돌아오니 오후 2시 30분입니다.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메뉴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침에 먹은 올갱이 국밥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침보다 더 맛있습니다. 석천과 초강천에서 올갱이가 계속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오후 4시 21분,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 멀리 월류봉이 보입니다. 월류봉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이 머무르다 가면 좋겠습니다.

글 **여규용** 대청호해설사

기후위기의 중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칠대로 지친 일상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헉헉댄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날 엄청난 비가 내렸다. 정작 장마 때에는 오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장마가 끝나고 나서야 엄청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졌다. 서울에는 많은 피해를 남겼고 지금도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 복구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구의 기후위기는 소름끼치도록 가까이 존재한다.

이번 비 피해 소식을 접하며 도시 지역의 피해는 하수구의 부실한 문제점도 있었던 듯하다. 물이 차오르고 배수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막힌 하수구의 쓰레기를 치우니 물이 금방 빠졌다는 소식도 있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쓰레기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심하게 버린 담배꽁초 하나, 각종 비닐들, 버릴 때는 몰랐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 배수구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대청호보존본부 20주년 기념식

환경정화활동

얼마나 될까? 우리는 평소에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그러나 막상 생활속에서 보면 나조차 그런 문제에 무감각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모두가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청호해설사 선생님들은 그룹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주우며 드는 생각은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을 한다.

대청호는 우리가 먹는 물의 물 그릇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그 물그릇은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중이다. 바로 비점오염방지 교육이 그것이다. 많은 오염원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비점오염이다. 정해진 곳이 없이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일이 참 많음

비점오염교육

을 알게 되었다. 논밭에 뿌리는 비료나 농약,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쌓아둔 축분들도 모두 비점 오염원이다. 봄철에 논밭에 거름으로 뿌리는 축분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도랑으로 흘러들어 강으로 가고 대청호에 모이게 될 것이다. 도로 위에 차량들이 다니면서 마모된 타이어의 부스러기나 혹은 흘린 기름들도 모두 비점오염원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강으로 흘러들어 대청호에 유입되고 그것이 뜨거운 햇볕에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 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오염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교육시간에 대청호 유역에 만들어진 비점오염 방지 시설을 방문하였다. 공원처럼 잘 만들어진 방지시설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다. 하나 하나 열거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좀 더 깊은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방지시설이 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관심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참 많음을 알게 된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가 환경오염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수 없이 이야기를 해도 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 우리들의 휴양장소인 대청호는 우리가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놀러 왔으면 왔다 간 자리는 아니온 듯 깨끗해야 하는 것이다. 벤치마다 버려진 담배꽁초들 그리고 마시고 버린 플라스틱 커피잔들 참 많다. 쓰레기를 주우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자꾸만 더러워지는 대청호를 보는 일이다. 요즘 내린 비로 상류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떠 내려 왔을지 걱정이다. 그것을 수거해서 치우는 일도 엄청난 세금 낭비이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들이 대청호를 더럽혔을지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환경운동은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그래서 함께 잘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환경 운동이다. 지금은 그

플로깅팀 쓰레기 줍기

래도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줍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은 본다. 산으로 들로 운동은 나가서 쓰레기 줍는 사람들도 많다. 내가 사는 마을과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살리는 길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이고 또 버려진 쓰레기를 함께 주워 없에는 일이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미치는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환경활동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대청호 해설사 선생님들이다. 말로만 하는 환경운동가가 아니고 환경활동가 말이다. 우리의 물그릇 대청호를 지키고 아끼는 일은 우리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비점오염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많아질 것이다. 그런일에 늘 앞장서는 대청호해설사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이 크다.

글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사단법인 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이사장

자연을 탐하는 욕망의 골프장,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0년 전 동이면 지양리 27홀 골프장, 다시 하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옥천 골프장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대규모 골프장 개발움직임이 재개되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옥천신문 자료사진)

자연을 탐하지 말지어다. 다시 골프장 건설 움직임이 꿈틀거린다. 골프장 투쟁을 한 지 어언 10년 만이다. 2012년 2월 14일 골프장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2012년 2월 20일 군청 마당에 골프장 반대천막을 치고 1년 가까이 천막 투쟁을 했으니 옥천군 난개발막토건반대투쟁운동에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흔적이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싸워 나가자'고 서로를 다독였고 고향을 송두리째 골프장에 잡아먹힐 뻔한 위기에 처한 동이면 지양리 주민들이 그 한 가운데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들은 스리슬쩍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앞에서 운동했던 분들 하나 둘 저 세상으로 가시고 나면 훨씬 더 쉬워질지 모른다고. 2013년 3월 21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과 충남, 충북, 옥천 등 '대청호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는 '대청호는 300만 충청인의 식수와 생활용수, 각종 농공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안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주민을 보고 옥천군은 조속한 시일내 골프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당시 주민대표로 발언을 한 동이면 지양리 김홍열 노인회장은 '골프장이 뭔지도 모르고 땅만 파먹고 살던 우리들은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리에 지난 1년간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매일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 뿌리내리며 살던 삶의 터전에 갑자기 난데없이 골프장이 온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 것인가? 땅을 소유하되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비싼 값에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멀리 골프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옥천에 27홀 짜리 골프장이 생긴다니까 눈이 벌개져 관광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골프장에 그 수많은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을 많이 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동이면 지양리는 대청호와 인접해있는 마을로 바로 식수의 오염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연을 탐하여 돈을 벌려는 욕심을 가진 토건업자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정책을 들먹이며 이미지 세탁을 하며 골프장 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멀쩡한 자연을 그린워싱하여 녹색사막을 만들려는 골프장은 지역의 재앙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옥천읍-동이면-안내면-안남면 등 4개 지구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되어 안터마을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등 후속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27홀짜리 골프장이라니. 뭐든 다 가져다 붙이며 두개 다 하고 싶은 모양이다. 뭐든 공모사업이라면 아끼지 않고 기업유치, 자본 유치는 뭐든 받아들이는 그런 '습'은 지역을 딱 망가트리기 십상이다. 다양한 식생을 파괴하며 단일작물인 잔디를 쫙 까는 것이 어찌 생태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반딧불이 서식지와 직선거리 500-700미터 추정되는 곳에 약 36만 평(축구장 170배)의 대규모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옥천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여차하면 눈치보고 분위기 봐서 추진할 요량인 것으로 보인다.

지양리 마을 인근 안터마을은 반딧불이를 잘 보존해 대청호 보전 최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골프장은 농약뿐만 아니라 물 부족을 야기하는 귀신이다.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왔던 땅과 산림이 이제 골프장으로 개발되면 하루에만 1천톤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그들만의 잔디, 그들만의 물로 자연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옥천신문에 따르면 그들의 논리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업자의 말을 들어보자. '홍천 시골마을에 골프장 지어 놓

으니 수도권 청년들이 골프치러 그 산골까지 와서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놀다 가더라. 옥천이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간에 있어서 골프로 관광객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골프장을 넘어 상류지역 주민을 존중하는 환경정책으로

이런 움직임과 말들은 뻔하지만, 대청댐 때문에 개발제한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이 많은 일부 옥천 주민들에게 때로는 먹히는 말이고 정치인이 혹하는 말일 수 있다.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는 이미 수십년 동안 겪어왔으니 피해의식이 겹처럼 쌓여있다. 40여 년 전 막무가내 정부 정책으로 고향을 수몰시키며 주민들을 몰아냈던 그 폭압적인 정책적 상흔으로 옥천은 여전히 내상이 깊다. 마을만 수몰시킨 것이 아니었다. 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시켰다. 특히 군북면의 면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여울로 건너다니며 인접하여 서로 만나곤 했던 면지역이 육로로 한시간 넘게 가야 하는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군북면 이평-석호간 교량 건설을 주민들이 그렇게도 원했지만, 환경부에서는 막판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선을 그어 주민숙원사업을 좌절시켰다. 군북면 막지-소정간 사람이 다니는 구름다리라도 놓아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했지만, 그 마저도 모른 체 했다. 국도 확포장의 새 교량은 몇 백억으로 잘도 놓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은 모른채 했다. 겨울이 얼어 강물이 꽝꽝 얼으면 배도 운행을 못해 아슬아슬 밧줄을 잡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애환에 대해서 그들은 별 관심이 없다. 뉴스에 가끔 나오면 '시골 오지마을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네' 이정도로 반응할 뿐 정책적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대청댐으로 인해 군북면이 사분오열되어 갈기갈기 찢기게 된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재해이다. 이를 위해 이평-석호간 교량과 막지-소정간

2013년 3월 21일 물의 날을 맞이해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선언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골프장 반대를 외치는 동이면 주민들

다리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여지껏 방치되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를 말라죽이고 있다.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고 땅을 팔라고 이야기하며 비싼 값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하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된다. 지역소멸 지역에 낙인찍힌 옥천을 더 공동화 만드는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맥락을 살펴보면 금강유역환경청의 상류지역 농촌을 더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정책 행위가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자극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옥천군이 80억 원을 들여 신설키로 한 교량은 이미 2010년에 완공했어야 하나 환경부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다. 2011년에 군북 막지-소정간 보행자용 구름다리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은 옥천군에서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광용으로 출렁다리는 놓으려고 하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름다리는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보은 속리산으로 가는 37번 국도 확포장 4차선 교량은 아무렇지 않게 놓으면서 대청댐 때문에 단절된 마을과 마을을 잇는 2차선 교량을 놓아달라는 요구는 아무렇지 않게 거절하는 속내는 뻔하다. 지역 농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단지 납작하게 골프장 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환경파괴를 하려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으로 납작하게 봐서는 곤란하다. 지역 안에서도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는 주민 삶과 또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제일 잘 알고 있다. 지역 주민을 오염원으로 보는 정책적 시선을 바꾸지 않고 땅을 매입하여 지역을 소거하려는 환경정책을 고수한다면 주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도시 사람만 먹는 물을 보지 말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간극, 상류와 하류의 차이를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다. 내부에서 동력을 잃으면 싸움의 대척점이 변질된다.

현명한 옥천 주민들은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27홀짜리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고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모르고 스쳐 지나갔을 반딧불이를 찾아서 알리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골프장 반대 투쟁에 하류지역 도시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도 연대의 의미로 귀하지만, 실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지역 상류지역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다. 우리는 같은 물을 먹는 식구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교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 야박하게 먹는 물만 보지 말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같이 볼 때 자연과 사람의 삶이 어떻게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다시 꿈틀거리는 골프장,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골프장으로 망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세월이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운동과 철학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서화천 유역의 주민들과 함께 실천합니다!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이하 서화천 거버넌스)의 활동이 올해도 한창 진행중이다.

환경리더와 하천모니터링단은 매주 옥천군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금산군 추부면에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천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홍보현판을 제작하여 오염지점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8곳의 지점에 설치하였다. 쓰레기 소각 지점 원상 복구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마을 실천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져 왔는데 3월부터 현재까지 군북면 이백2리, 자모리, 군서면 동산리, 은행리, 오동1리, 월전리, 추부면 용지1리 등의 마을에서 총 16회 실시되었다. 6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약 90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환경교육도 실시되었는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교육,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가림 분리수거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시설 활용을 올바로 하기 위한 분리배출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영농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한 파쇄기를 1개 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하였고 8월중 지원 예정이다.

10월 초에는 서화천변 수상 및 육상 민관협력 대청결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추부면의 4곳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영어조합과 함께 서화천 수상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수질개선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화천 유역의 마을과 하천의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맑은 하천, 깨끗한 대청호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 2020년 수해가 생각나는 2022년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수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에서 대청호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많아져 녹조현상이 더욱 심해질까 염려되는 요즘입니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을 줄이고 맑은 하천, 깨끗한 대청호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여름 동안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 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하겠습니다.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는 지난 6월 7일 축분관리 소위원회를 열어 회인천 지역 방치 축분 조사 결과를 소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 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보은은 사람보다 소가 많다고 할 만큼 축사가 많아 가축분뇨의 정화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축분을 만드는 축사뿐만 아니라 축분을 구매하고 하천과 가까운 밭이나 논에 방치하는 축분주와의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퇴비사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축분관리 소위원회에서는 추후 축분 관련 문제 해결책을 성립하고 실천활동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회인면 용곡리 지역의 수년 동안의 과제였던 용곡교 근처 고사목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용곡교 근처 고사목은 장마때 마다 회인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고사목에 걸려 정체가 되고 매년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된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 1차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 6월 7일 K-water 대청댐지사와 보은군청, 회인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그리고 양헌석 용곡1리 이장님 및 마을 주민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조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용곡교 지역을 관리하는 K-water 대청댐 지사에서 고사목 제거 사업을 발주하였고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에서 전문가와 함께 답사 후 고사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사목 제거 작업 실시 후 용곡1리 마을 주민들은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환영하였고 마을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맑은 회인천을 만들고 나아가 깨끗한 대청호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대청호보전운동본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동네트워크

더운 날씨에도 함께하는 법화천 거버넌스

글 **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에서는 지난 8월 4일 법화천 소유역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용산면 구촌리에서 법화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용산면과 새마을회 그리고 적십자가 함께하는 민관이 함께한다는 데에 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용산면 새마을회에서는 오는 가을에도 작년처럼 농약병을 모아서 분리하고 처리하는 일정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영동네트워크에서 달려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은네트워크

더 나은 대청호, 더 깨끗한 대청호를 위해

글 **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선진지(생태문화탐방)견학

회원마을, 회원단체, 하천감시단 등 35명이 논산 탑정호와 수변생태공원을 탐방하였습니다.

탑정호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로서 수질이 깨끗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겨울 철새들의 월동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하여 논산시에서 출렁다리, 음악분수, 수변데크, 수변공원 등 수변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저수지입니다. 우리지역의 대청호 또한 친환경적인 수변공원 및 수변개발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받는 대청호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맑은하천만들기(보청천정화활동)

보은하천감시단분들과 회원단체인 환경연합보은지부 회원 20명이 모여서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인 보청천(대바위가든앞)을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매트리스를 비롯해 750리터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청주네트워크

알아서 척척! 자율적 주민 하천관리시스템

글 **우미란** 청주네트워크 팀장

2022년 상반기 청주네트워크에서 진행된 사업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 소유역 관리활동은 대청호 인근 마을주민과 함께 실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자율적 관리활동으로 일상적인 하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진행된 대청호 주민하천관리단 발대식 및 현장워크숍을 시작으로 5월부터 월 1회 진행되고 있으며, 37인의 하천관리단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하천정화 활동이 아닌 총 17개 구간의 하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화활동 및 감시, 계도,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여 주민주도형 하천관리활동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일회성 또는 정기적인 정화활동은 당시의 효과는 높아 보일지는 몰라도 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이야말로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인식개선 및 일상적인 계도 활동 등이 가능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네트워크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하천 지키기

글 **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사업 진행 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비교적 코로나가 안정되어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부담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22년도 상반기 무주네트워크에서 지역주민들과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던 그간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은 대청호로 직 유입되는 가당천과 남대천이 선정되어 마을 대상으로 하천 중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마을 (상굴암마을, 상길산마을)를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투기, 소각장소를 주민들과 말끔히 정리하고 예쁜 화단을 만듦으로써 쓰레기 투기 및 소각 방지를 막기 위해 주민들과 노력하였고,

폐비닐 장에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비닐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여 하천변 폐비닐 수거장도 말끔히 정리하여 비가 내려 오염원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발생도 방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병행하면서 의식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네트워크

대청호 친환경농산물보따리 및 직거래장터

글 **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전네트워크에서는 '주원천 소유역거버넌스 운영 및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 주제로 올해 총 4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및 대청호 수질개선 기여하는 대청호 친환경농산물보따리 및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대청호상류지역 친환경농가로 구성된 생산자조직 활성화하고 제철 농산물보따리 직 배송, 직거래장터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남선 공원 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는 대청호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가 대전지역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요즘 코로나, 폭염 등으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시는 농민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시간 내시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꼭 한 번 들러 주세요!

천안아산네트워크

병천천소유역 거버넌스 수질개선활동

글 **이상명**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천안아산네트워크에서는 병천천소유역 거버넌스 운영과 수질개선활동과 감사단 실천 활동 및 홍보 캠페인, 물 사랑 환경교육과 물 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분들과 수질 개선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사랑 환경교육과 EM관련 만들기 활동을 통해 천연 제품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아산 네트워크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 개선과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더욱더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네트워크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자치활동 활성화

글 **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대표 유태식)는 올해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안내면을 중심으로 "소유역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안내면 동대리, 방곡리, 환경사랑실천단(농약병수거)과 함께합니다.

마을별 정화활동 및 교육, 회의, 농약병수거로 이루어집니다.

5번의 회의 중 2번의 회의를 진행하여 년간 계획 및 정화활동 일정 등을 공유하여 진행합니다. 동대리, 방곡리는 마을별 정화활동 3회씩 진행하며 환경교육 및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1차 6월 23일 방곡리는 합동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쓰레기봉투 100L*20=2,000L 수거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교육 및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방곡리는 마을 폐비닐 수거장에 각종 쓰레기 많아 수거 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차 6월 27일 동대리 합동정화활동 및 교육 진행하여 마대 30L*10=300L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친환경비누 만들기를 진행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소유역거버넌스"는 대청호직유입 하천의 수질개선 실천 활동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마을가꾸기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산네트워크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 만들기

글 **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의 하반기 사업을 소개합니다.

금산네트워크는 추풍천소유역거버넌스사업으로 민관협의체 회의가 9월과 10월중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회원단체인 정심회회원들이 진행해온 추풍천가시박제거사업이 8월말에서 9월초에 추풍천 변의 가시박제초작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협회 회원중심으로 진행하는 하천정화활동은 8월 중으로 성황리에 마쳤고

상반기에 65%의 사업진행을 마친 깨끗한마을만들기사업은 9월 10월 11월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산네트워크 주관단체인 친환경농업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실천마을만들기사업으로 친환경농약을 만들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사업은 8월 중으로 마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교조 금산지원에서 금산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생태환경탐사단 활동은 9월 10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청호, 충주호, 괴산호에 뱀장어 치어 2만 마리 방류

충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소장 강동양)는 10일 뱀장어 치어 2만마리를 대청호(보은군 회남면), 충주호(충주시 동량면), 괴산호(괴산군 불정면, 청천면)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국내산 뱀장어 포획량이 줄어 뱀장어 치어 구입단가가 올라 방류수량이 감소했으며 1억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는 인공종자생산이 불가능해 태평양 심해에서 산란하고 부화한 후 민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Anguilla japonica, 약 5㎝)를 국내에서 포획하고, 39일간 10~14㎝정도로 육성시켜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마친 건강한 치어이다.

자연산 뱀장어는 2021년에 충북도에서 약 24t이 포획돼 26억원의 소득을 올려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고소득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관계자는 "댐 건설로 인한 어도 차단으로 인해 뱀장어가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기가 어려워졌기에 인위적인 자원조성이 필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뱀장어 치어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 2022. 06. 13 도복희 기자

옥천군, 대청호 수중 쓰레기 수거… 댐 건설 후 처음

연안 어민들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따금 수중 쓰레기를 치운 적은 있지만 옥천군이 예산을 세워 수거에 나서는 것은 1980년 댐 건설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물속에 잠겨 있는 수중 쓰레기는 대청호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물속에 버려진 폐그물과 폐어구에는 물고기가 갇혀 죽어 부패하기 일쑤다.

대청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각종 쓰레기도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며 환경오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옥천에는 각망·자망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다슬기를 채취하는 어업인 허가자가 64명, 투망이나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 신고자가 127명 있다.

이들은 옥천군에 어구·어선 지원, 가마우지 유해야생조수 지정 등을 요구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청호 수중 쓰레기를 꼽아왔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위탁업체를 조만간 선정, 수중 쓰레기 수거·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억8천500여만원의 예산도 세웠다.

대상 지역은 옥천읍과 동이·안남·군북면이다. 대청호 접경지역이 넓고 어민 활동이 많은 곳 위주로 선정됐다.

수중 쓰레기 수거에는 21명의 잠수부가 투입된다.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담하게 된다.

수거 작업은 장마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수중 쓰레기 27.5t, 폐선박 3척을 수거하는 게 목표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대전·충청지역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이나 어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가 우리 지역의 생활 터전인 만큼 수자원 보호와 깨끗한 어장 관리를 위해 격년으로 수중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 06. 20 심규석 기자

대청호 상류 오염배출사업장 위반 16건 적발… 1건 검찰송치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등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금강환경청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수계 상류에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폐수 방류 전에 자가측정 이행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상태를 방치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의 고장·훼손을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다.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배출량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 총 32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적발률 50%이었다.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청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중도일보】 2022. 07. 04 임병안 기자

20살 맞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청호 먹는물공동체 이루자"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최병욱)는 지난 15일 충북 옥천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청호 유역공동체를 향한 창립 목표를 되새겼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02년 4월 출범해 대청호 유역 최초의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련부처로 구성되는 범국민적 기구를 지향한다. 2001년 대청호에 심각한 녹조인 '조류대발생'이 발령돼 식수원 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단체를 구성하자는 열의가 모여 출범하게 됐다. 각종 연구·조사 활동, 홍보·교육 활동 등을 통해 대청호와 인근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식 고양 및 실천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황규철 옥천군수, 윤재찬 K-water 금강유역본부장 및 8개 지역네트워크 참가단체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출범 20주년을 축하했다.

금산군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마을에서 참석한 최광수 이장은 "몇 년 전에 우리 마을에 발생한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운동본부가 큰 힘이 되었다"라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하면서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지금은 쓰레기가 없는 마을이 되었다"라며 축하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운동본부의 활동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더욱 빛이 난다"라며 앞으로의 20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취임 후 첫 축사가 운동본부의 20주년 행사인 것이 기쁘다. 대청호를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중도일보】 2022. 07. 19 임병안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댐 가뭄대책 종합점검

홍수기에도 남부지역 중심으로 가뭄 상황 지속, 주암다목적댐 등 수자원공사 소관 전국 11개 댐 가뭄 단계로 관리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8일 순천시에 위치한 주암댐 지사에서 가뭄 대응을 위한 전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댐의 가뭄 상황 및 용수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관으로 본사와 유역본부(영·섬, 낙동강), 주암댐, 안동댐-임하댐 등 가뭄상황에 대응 중인 주요 댐 지사들이 참여하여, 각 권역 및 댐별로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댐 운영계획 및 용수공급 대책을 논의하였다. 금년(1.1~8.7.)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34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예년의 72%(금년 561㎜ / 예년 776㎜) 수준이며, 특히 남부지역 댐은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가뭄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가뭄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의 하천유지용수 등을 감량하여 댐 용수를 비축하는 한편, 댐 간 연계 운영, 하천수 취수, 농업용 저수지 등 지역 수원을 활용한 대체공급 등의 가용대책을 총동원하여 댐 용수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인해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금일 회의를 통해 가뭄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 가뭄에 대비하여 댐-댐, 댐-하천 등 수원 간의 연계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용수비축 계획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물절약 추진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수돗물 녹조독소 대전시도 준비해야!

ELISA법과 LC-MS기법 동시 활용한 녹조독성 검출 시스템 구축 필요!

대구의 정수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소가 검출되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마으크로시스틴은 간독성을 가진 물질로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은 낙동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의 상수원은 대청호도 매년 녹조가 창궐하기 때문이다. 원수와 정수에서 매주 2회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이크로시스팀 검출법은 ELISA법과 LC-MS기법이 있다. 대전시에서 채택한 방법은 LC-MS기법으로 4종의 독소를 검출 한다. 하지만 200종이 넘는 녹조독성을 다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번에 대구에서 검출한 방식은 ELISA법으로 특정종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넓은 범위의 독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곳 대청호의 대규모 녹조가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추가해서 진행해야 한다.

대구시도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대전도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두 방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낮은 방법을 선택하고 보완하고, 안전성을 높여야 할 책무가 있다. 본격적인 녹조가 오기 전 새로운 방법을 시범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여 안정성을 높일 것을 공게적으로 제안한다.

금강유역환경청

대청호 녹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금강유역환경청은 6월 29일 오후 대청호 서화천 수역에서 '대청호 녹조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훈련을 주관한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더해, 금강물환경연구소, 대전·청주상수도사업본부, 옥천군,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여 녹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함께한다.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녹조발생 예측부터 조류경보 발령, 기관별 대응, 조류경보 해제까지의 상황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춰 기관별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화천 수역에서는 녹조 저감시설을 기동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서화천 추소리 지역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녹조발생 상황별* 조류경보 발령, 정수처리강화 및 먹는물 분석, 녹조저감설비 운영 등의 기관별 대응역할을 수행한다.

* ①녹조발생 예측 → ② "관심" 경보발령 → ③ "경계" 경보발령 → ④ 경보해제

이를 통해, 각 기관별 대응인력의 역할 숙달과 더불어 다른 관계기관들의 역할을 숙지하고 이해도도 높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에 더해, 녹조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유압식 녹조제거 장치 등 녹조저감장비를 서화천에 투입·운영하는 장비기동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무인선박, 에코봇, 드론 등의 첨단장비도 적극 도입하여 앞으로 보다 과학적인 녹조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영동군

충북도내 골프장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8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건기, 4~6월)와 하반기(우기, 7~9월) 두 차례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내에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며, 대상 농약은 총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이다.

도내 골프장에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독성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이 미량 검출되었다.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의 검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하여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관리함으로써 토양·지하수오염 예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상길마을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위례마을살이,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댐의 환경관리,
이제는 댐지역 주민에게 환경일자리로…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이 대청댐 주민과 함께 합니다

대청댐 건설로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고통받는 댐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댐관리의 주민참여가 각계의 노력으로 이제야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옥천군과 함께 대청댐하천쓰레기자율관리사업을 통해 댐과 하천의 환경관리가 지역주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는 환경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OVA APERIO 1951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